울퉁불퉁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 위협

광주 최근 4년간 28명 숨져·사고 하루평균 1.2번 꼴
노면 갈라지고 車·보행자에 내몰려…안전대책 시급

광주지역 자전거도로가 깨지고 갈라지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기피하고 있다.

광주지역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보행자도로에 선만 그어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가 하면 노후해 갈라지고 표시구역도 지워져 이용자들의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밭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자전거도로는 300개 노선에 637.8㎞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중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265개 노선에 484.6㎞(75.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109.3㎞(17.2%)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20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자전거도로.

인도와 자전거 길을 구분 짓는 경계석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었다. 일부는 아예 떨어져 나간가 하면 깨진 구조물은 도로 위 흉기로 전락한 지 오래돼 보였다.

더욱이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지수전(양수기 등으로의 통수를 막거나 부분 통수하는 장치, 청동 또는 황동제)도 통행 불편에 한몫 거들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신안동 한 자전거도로.

일부 도로가 치솟아 올라 울퉁불퉁한 구간이 길게 늘어졌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훼손이 심한 도로에 불편을 겪은데 이어 이곳을 점령한 오토바이와 보행자들로 운행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심지어 인근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길이 뚝 끊기는 현상까지 내몰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대표적인 자전거도로인 광주천변도 예외는 아니다.

오토바이가 버젓이 운행되는가 하면, 일부 구간의 경우 안내표지판 문구가 지워지면서 각종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변우로는 산책로이며, 천변좌로만 자전거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내표시가 지워지고, 정작 통행이 가능한 천변좌로의 경우 광주시와 환경공단이 내건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광주천 함께 가꾸기' 안내표시판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산책로 자전거 통행 금지'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 최근 4년간(2014-2017년) 광주에서 1천695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1천7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하루에 1.2번꼴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평소 회사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김세영(28·여)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길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넘어진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개·보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구간이 길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사우나 주차장 승용차 추락

광주 광산구 한 사우나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광주 광산파출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7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사우나 건물 주차장 3층에서 이모(59·여)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도로로 뒤집힌 채 떨어져 운전자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씨가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경사진 면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산=주형탁 기자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사우나 건물 주차장에서 이모(여)씨의 포르테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이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품 다툼' 의식 잃은 50대 숨져

친구와 오락실 경품을 나누는 문제로 다툰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가 20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한 오락실 복도에서 A(51)씨가 친구 B(51)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게임을 통해 오락실 경품에 당첨됐고, B씨는 자기가 돈을 넣어줬으니 이를 나누자고 했다.

B씨의 제안을 A씨가 거부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툼을 벌였다.

오락실 주인이 만류하면서 싸움은 30여분 만에 멈췄다.

하지만 싸움을 멈춘 뒤 오락실 복도에서 있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21일 숨졌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조업일지 부실' 중국 어선들 '철퇴'

목포해경, 올해 17척 적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록한 중국어선들이 목포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에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로 59t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전날 오후 12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650㎏을 포획하고 운반선에 옮겼으나 조업일지에 전재 위치 및 시각 등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가거도 북서쪽 53.4㎞(어업협정선 내측 50.3㎞) 해상에서 A호를 나포했으며 현장에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한 후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총 17척을 검거해 담보금 7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1일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이날 오후 1시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약 55㎞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강효종 기자

'조폭 매형 보복' 유흥업소 부순 30대 구속

조직폭력배인 매형의 합의를 위해 보복에 나선 처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잇따라 부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유흥업소 13곳의 출입문을 골프채를 휘둘러 산산조각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업소 주인들이 자신의 매형인 조직폭력배 A(44)씨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소 주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1년 동안 이들 업소로부터 갈취한 돈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매형은 구속됐는데, 신고한 업주들은 잘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인형뽑기방 돌며 절도 20대 3명 구속

장흥·강진 등 전남지역 일대를 돌며 돈을 훔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흥경찰서는 인형뽑기방, 셀프 세차장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남 강진읍과 장흥읍 일대를 돌며 인형뽑기방과 셀프 세차장 등 5곳에 침입해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현금 7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 시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침입해 지폐교환기를 뜯고 현금을 훔치고, 그 일당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에게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고병곤 기자

"친구는 믿지만…"

딱딱어

○…아버지 친구가 자신의 집에 맡긴 전자제품을 중고품 매매상에게 팔아치운 20대가 절도 혐의로 경찰 서행.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친구 B(57)씨가 잠시 보관을 부탁한 7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훔쳐 팔아치운 혐의.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다른 지역에 사는 누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샀다가 잠시 보관할 곳이 없어 A씨의 아버지에게 부탁했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본인의 소유물은 아니다"고 혀를 끌끌.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세정 공인 중개사무소
광주 광산구 송정동 871-35
010-7574-9985 / Fax. 062-941-3006

◈ 상가 ◈
◈ 광주시광산구송정동대지101평 건평 160평
3층상가건물 투자적합 매매가▶9억1천만 조정안됨

장성 나노단지 근린상가 2종현재 6차선접
▶800평당 290만

◈ 과수원 ◈
나주시 영산동 ▶2530평당15만원
나주배 특구 투자처 확실

◈ 원룸 ◈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80평 룸19실 2014년 준공 ,시티목욕탕 옆, ▷융2억 보1억 월520만 ▶매가 9억3000만

◈ 주택 ◈
광산구 도산동 대지37평 2층 상아아파트 앞 , 도로접, 점포가능
매매가 ▶2억4천

◈ 교회 ◈
동림동 삼익아파트 입구 5층 60평
매매가 ▶1억7000만원 승강기있음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먼바다 조망양호, 건축허가필2층주택, 별장, 2차선접
조정가능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00평당 120만

시내 / 시외 / 물건 접수바랍니다

임야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2층주택 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급매 전문

2,300세대 아파트
출입구 최고상권 투자용 건물 [급매]

광주 동구 계림동
상업지역 대지280㎡ 건평171㎡ 연건평981㎡
지하1층, 지상5층, 승강기 있음
급매가 : 10억2,000만 → 9억9,000만
[특징]
현재 모텔이나 용도에 맞는 구조로 리모델링 할 경우 환상적인 빌딩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물 바로계약합니다※
(지역무관) 매수고객 다수 대기중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